

##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 신앙과 애국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도 아직 부름을 받기

전이었을 때에는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한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살인자로 쫓겨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까지 감당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애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국이 곧 신앙이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모세와 바울의 경우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조국을 구원하고 깊어하는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정치화도 문제이지만 정치의 신앙화도

더 배격해야 할 이상입니다. - 하용조